

# 미래인적자원 육성 연구로 육아정책의 내실화를



조복희 소장

**지난 한 해**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제 2차 시행이 시작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환경이 변화하고,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육아지원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우리 육아정책연구소는 그 어느 해보다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또한 작년은 우리 연구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였습니다. 2005년 12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육아정책개발센터로 개소한 이래 2009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로 기관명을 개칭하고, 육아정책연구, 육아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육아지원기관의 평가 및 자문, 육아지원인력의 자격제도 관리 및 교육, 육아정책 관련 국제협동연구 등을 통해 영유아 발달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에 이어 올해는 특히 미래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연구를 새롭게 추가하여 육아지원정책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대응은 단지 출산력 회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인력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세계화로 인한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개인화로 인한 결혼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 증대로 젊은 층들은 결혼 진입 자체가 어렵고, 불안정한 소득 하의 결혼한 부부들은 과도한 양육비 부담으로 자녀 출산을 기피하며, 결혼과 출산은 선택으로 인식하여 독신이나 무자녀 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출산력 회복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생아 수가 급작스럽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미 출생한 아동들을 잘 양육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저희 연구소는 인적자본에의 투자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육아지원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재외동포 자녀, 새터민 가족 자녀 등을 연구 대상으로 포괄하고,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 지원 강화, 영아 지원의 효율화 등에 관해 본격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잠재된 미래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아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적자본 조기투자의 효과성에 주목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8월에는 조기투자의 필요성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정책적 시급성을 강조하여 육아지원의 비용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중심의 보육 등 특정 부문에 한정되어 그 효과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되므로 올해는 보편적인 육아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육아정책연구소는 특히 육아지원 강화와 효율적인 육아지원정책의 실현을 위한 통합적 운영에 주목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육아지원 인력, 교육·보육과정, 시설 설치·운영체계 및 재정 전반에 관한 단·중기 통합 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 보육·유아교육의 협력 모델 마련에 관한 시범 연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영유아에 대한 육아지원이 단지 노동시장 참여 지원 등 부모들의 요구나, 유연한 노동 지원 등 기업의 요구에만 부응할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권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기관의 보육 활동 등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글로벌 육아정책의 허브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